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주처를 모르십니까

조주 스님이 어떤 행자에게 물었다.
“어디에서 왔는가?”
행자가 말했다.
“북원(北院)에서 왔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저쪽은 여기와 비교하여 어떠한가?”
행자는 대답이 없었다. 스님은 그 옆에 서있던 학생에게 대신 대답하도록 시켰다. 그 학생은 대신하여 대답했다.
“저 사원에서 왔습니다.”
조주 스님은 웃었다. 조주 스님은 문원에게 다시 또 대신 대답하도록 시켰다.
문원이 말했다.
“행자는 스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師問一行者 從什麼處來 云北院來 師云 那院何似者院 行者無對 有僧在邊立 師令代行者語 僧代云 從那院來 師笑之 師又令文遠代之 文遠云 行者還是不取師語話

문원은 왜 “저쪽은 북쪽이고 이쪽은 남쪽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가.

조주 스님이 좌주에게 물었다. “어떤 학업을 익히고 있나요?”
좌주가 말했다. “유마경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유마경에 ‘한 걸음 한 걸음이 도량이다’ 라고 했는데 좌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좌주는 대답이 없었다. 스님은 전익(全益)에게 명하여 좌주를 대신하여 대답하게 했다.
전익이 말했다.
“다만 이 한 물음이야말로 도량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의 몸은 도량 속에 있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빨리 말해보아라.”
전익이 말했다.
“화상께서 학인의 마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렇다.”
전익이 말했다. “다만 이 일문일답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은 심소(心所) 속에 있지 않아. 진리는 6근을 벗어나야 알게 돼.”
전익이 말했다.
“이미 심소 속에 있지 않다 하시면서 화상께서 무엇을 찾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가 대답하지 못하니까 그래.”
전익이 말했다. “진리는 6근을 벗어나도 알지 못합니다. 어찌 대답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는 나의 집(睡)을 먹은 거야.”

師問座主 所習何業 云講維摩經 師云 維摩經步步是道場 座主在什麼處 主無對 師令全益代座主語 全益云 只者一問可識道場麼 師云 你身在道場裡 心在什麼處 速道取

조주 스님이 좌주에게 물었다. “어떤 학업을 익히고 있나요?”
좌주가 말했다. “유마경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유마경에 ‘한 걸음 한 걸음이 도량이다’ 라고 했는데 좌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云和尚不是覓學人心 師云是 云只者一問一答是什麼 師云 老僧不在心所裡 法過眼耳鼻舌身意而知解 云既不在心數裡 和尚爲什麼覓 師云 爲你道不得 云法過眼耳鼻舌身意而不解 作麼生道不得 師云 喫我涕唾

마음은 6근을 벗어나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그 존재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지만 없는 것은 아니다. 선사와 대답에서는 알 수 없는 그 마음을 보여야 인정을 받는다. 논리에 치우치면 말은 맞으나 인정받을 수는 없다.

조주 스님이 또 수유 스님에게 갔다.
수유 스님이 말했다.
“어르신께서 어찌 주처를 구하지 않으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어디에 살 곳이라도 있는가?”
수유 스님이 말했다.
“어르신께서 주처(住處)도 모르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30년이나 말을 타고 다루었는데 오늘은 당나귀에게 내동댕이질 당하고 말았군.”

師又到萊蕪 萊蕪云 老老大大 何不覓箇住處去 師云 什麼處住得 萊蕪云 老老大大 住處也不識 師云 三十年弄馬騎 今日卻被驢撲

노사라 해도 맞는 말에는 할 말이 없다.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48



부왕이시여! 우리의 혈통은 디팜카라, 콘단냐로부터 캣사파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혈통인 것입니다

〈인연이야기(니다나 카타)〉

함흥차사(咸興差使), 라는 말이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 해도 늘 좋지만 한 것은 아니었을 터이다. 권력이라는, 지상 최대의 이해관계가 걸려있었으니 오죽했으랴. 아들이 비록 왕위에 올랐지만, 아버지인 상왕(上王) 역시 나라의 권력을 갖고 있었을 것이니 아들로서도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아버지 마음을 돌려보려고 사신을 함흥으로 보냈으나, 가는 족족 돌아오지 않았기에 생긴 속담이다.

다소 다르지만, 비슷한 이야기가 부처님과 그 부왕 쏏도나(淨飯王)사이에 있었다. 아들은 부처님이 되었다 해도,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아들이었던 모양이다. 인지상정이라. 한번 보고 싶었다. 신하들을 보내서, 고향방문을 늘리지 종용해 보라 했다. 그러나 가는 족족 돌아올 줄 모른다. 모두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는 부처님 곁에 눌러앉고 말았다.

이 중차대한 임무를 짊어지고 출발하는 마지막 사자의 이름이 카루다이었다. 떠나기 전, 앞으로부터 약속을 하나 받아낸다. “만약 제가 출가해 주실 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 일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쯤이야 무엇이 어렵겠는가. 오매불망하던 아들을 한번 볼 수만 있다면...

카루다이는 가자마자 두말 않고 출가를 한다. 그리고서는 한 7·8개월이 지난 뒤, 넌지시 부처님께 ‘고향방문’을 권청(勸請)한다. 이때 카루다이는 웃다이라는 법명(法名)으로 불리우고 있었다.

“웃다이어, 그대는 대체 무슨 까닭으로 달콤한 말을 하며 내게 돌아갈 것을 권하는가?”

“존귀하신 스승이시여! 그대의 아버지인 쏏도나 대왕이 만나고 싶어하십니다. 친족들을 만나주소서.”

이리하여 마침내 부처님은 고향 카필라를 방문기로 한다. 당시 함께 간 대중이 2만명. 문제는 이 2만명을 먹이는 일일 것이다. 당연히 아버지인 쏏도나 왕이 ‘한 톨’을 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어디 부처님께서 그런 분이시던가? “과거의 부처님들은 어떻게 고향에서 탁발을 하셨을까? 멀리까지 권력자의 집으로 가셨을까? 그렇지 않으면 순서를 밟아 집집마다 탁발

하러 돌아다니셨을까?”
결론은 “나도 이제 그 전통과 관습을 그대로 밟아야 겠다”는 것이었다. 그 전통과 관습은 곧 탁발 결식이었다. 한편, 아버지 왕은 모처럼 만나게 될 아들 부처님과 그 제자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했을 터인데, 들려오는 소문에 탁발을 하고 있다니... 아버지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을 것이다.

“존귀하신 스승이시여! 우리의 혈통을 지닌 이들 중에 결식을 한 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왕이시여! 우리의 혈통은 디팜카라, 콘단냐로부터 캣사파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혈통인 것입니다.”



그림 · 박구원

그 혈통에서는 결식으로 생명을 유지하셨다는 이야기다. 세속을 떠난 부처님의 입장이 다시 한번 더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석가모니불 이전에도 부처님이 계셨다는 이야기다. 다른 경전에는 디팜카라(燃燈佛)로부터 가섭불(迦葉佛)까지, 과거에 7불이 존재했다 한다. 그 일곱 번째가 바로 석가모니불 당신이시다.

이는 신화라 할 수 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불교의 진리는 붓다에게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 부처님 이전에 진리(法)가 먼저 있었고 부처님은 그 진리의 발견자라는 것을 보다 극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 나름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역사가 아니라 해서 무시할 수 없겠는가. (이미명 옮김, <붓다의 과거세 이야기>, 민족사, pp.182-189 참조)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주성원의 기초 교리 <43>

오염된 마음, 항상 또는 때에 따라 일어난다

번뇌-⑦ 두 종류의 중수번뇌와 십 종류의 소수번뇌

수번뇌에는 전회에서 설명한 방일(放逸)·해태(懈怠)·불신(不信)·혼침(昏沈)·도거(掉舉)·실념(失念)·산란(散亂)·부정지(不正知)의 대수번뇌 8종류에 이어 2종류의 중수번뇌와 10종류의 소수번뇌(小隨煩惱)가 있다. 중수번뇌(中隨煩惱)는 무참(無慚)과 무괴(無愧)이고 소수번뇌는 분(忿)·환(恨)·뇌(惱)·복(覆)·광(瞞)·침(諂)·교(矯)·해(害)·질(嫉)·간(慳)이다. 이들 번뇌를 전부 합하면 수번뇌는 20종류가 된다.

이 중에 중수번뇌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오염된 마음이 번뇌가 일어날 때 항상 따라 일어나는 상태를 말하고, 소수번뇌는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일어나는 번뇌를 말한다.

무참(無慚)과 무괴(無愧)는 근본번뇌가 일어날 때 항상 따라 일어나는 중수번뇌이다. 이 중에 무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마음에 대해 자기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상태이다. 무참의 참(慚)은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고 수치스러워 하는 마음이다. 무참은 스스로 이러한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없는 것을 말한다.

무괴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마음에 대해 남에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상태이다. 객관적으로 반성하는 마음이 없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올바른 지적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로 인해 죄를 저지르는 행동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소수번뇌에는 근본번뇌인 분노(瞋)와 함께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하는 세 종류의 번뇌가 있다. 그 중에 분(忿)은 자신이 좋아하지 않고 멀리하는 대상에 대해 화내는 마음이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인데 특히 폭력을 행사하게 될 정도의 매우 격한 마음의 분노를 말한다. 난폭한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이자. 다음으로 환(恨)은 분에 이어서 일어나는 번뇌로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끊임없이 원망하는 마음을 갖는 작용을 말한다. 환을 품은 사람은 그것을 억누르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와 같은 사람은 평상심을 갖지 못해 항상 번민하는 생활을 보낸다. 그 다음 분과 환에 이어서 일어나는 번뇌가 뇌(惱)이다. 뇌는 화가 나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계속 더해져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다. 그에 따라 상태를 더욱 오해하게 되고 그로 인해 스스로 번민하는 상태이다.

복(覆)은 글자 그대로 덮는 것을 의미한다. 불이익을 당하고 명예를 상실 할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이 저지른 죄를 덮어 감추는 것이 복이다. 그러나 후에는 반드시 후회하고 슬피하게 된다.

광(瞞) 또한 글자가 의미하는 그대로 속인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자신만의 이익과 명예, 세간의 평판을 얻기 위해 마음속에 계락을 감추고 남을 속이는 거짓된 마음이다.

침(諂)은 광과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이익이나 세간의 평판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마음이다. 다만 광이 계략적으로 남을 속이는 마음이라면 침은 아첨을 통해 사람을 조종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은폐하려는 마음이다.

교(矯)는 거만하고 교만한 마음상태를 말한다. 자신의 외모나 행위 등에 도취되어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높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해(害)는 자비심이 없어 다른 사람을 해할 수도 있는 마음 상태이다. 말하자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다.

질(嫉)은 질투하는 마음이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여 다른 사람의 뛰어난 점이나 영화를 질투한다.

간(慳)은 인색한 마음이다. 자신만의 이익을 희구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마음상태를 말한다. 재물이든 법이든 오직 자신만을 위해 모으고 배운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본지기자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질할 때 마다 한 알씩 켜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내 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꿸 때 되면 염장은 멀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 염주세트키트: 108염주 (10mm) 마감용 염주 1개(10mm) 종삼색, 코핀1개, 밴드, 이부사계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혔을 염주는 준비물 중 이부사계로 해결합니다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오직구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 줍니다.

4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빼냅니다.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헝겊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킵니다.

7 마감용 염주를 통과 시킨 두 줄에 밴드토를 끼워서 다시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8 이때 밴드와 마감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의 마감용 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9 두 줄로 2회 앞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번 헝겊 조이면 됩니다.

11 가위로 2mm정도 남게두고 자른 후 라이더를 살짝 지저서 손으로 가볍게 늘려줍니다.

12 108염주 완성
심원스님특허출원 20-2011-0003692 20-2011-0004171 20-2011-0005666

다담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